

<2011년 8월 28일 주일말씀>

너를 구원시키려는 것이 나를 위함이나 멸망받을 너를 위함이나

본 문 요한복음 3장 16-21절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평강을 빕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8월 한 달 동안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 환영 예배를 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는 주일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새로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또 최근에 새로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신의 섭리를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처음에는 모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행하시니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아시고, 사람들은 후에야 신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이 부르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앞으로 부르실 때는 자기 때에 부르십니다. 사람을 통해 부르시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깨닫게 하여 부르시고, 마음이 감동되게 하여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목적은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부르시기 전에는 뜻을 정해 놓으시고 사역자들이나 하늘의 천사들로 돕게 하시고 위험에서도 지켜 주시며 섭리해 오셨습니다. 그러다 때가 되어 불러오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본인도 모르고 타인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부르실 때 전도자가 알고 이끌어 오게 됩니다.

다. 그다음에는 자기가 교회에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깨닫다가 후에는 확실히 하나님과 주님의 부르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여 구원하시고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부르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면 그때부터 감격 감사하며 평생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 영혼을 구원하여 하늘나라까지 가게 됩니다. 고로 영원히 감격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평소에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과,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주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부르셨구나.’ 하고 바로 깨닫고 감격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뜻있게 불러오셨으니,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할 때 더 기쁘고 좋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고 영원히 영이 살도록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를 보내어 ‘복음’으로 택한 자들을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 말씀을 전해 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기간에 말씀을 듣게 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믿고 따르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내시고 가르쳐 주시고 역사해 주실 때, 이 기간에 본인이 말씀 받아들이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싫어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자기 영을 구원하기 싫어하면 하나님도 주님도 어쩔 수 없이 쳐다만 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기는 하지만 필요성과 가치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관심 없이 믿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주님이 부르셨을 때 감사하며 가치를 알고 믿든지, 아니면 믿어도 관심 없이 믿든지, 아니면 믿기를 싫어하든지 모두 자기 책임분담입니다. 하나님과 주님이 부르셨어도 자기가 싫으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온 인류가 다 구원받기 원하시어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주님께로 불러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믿고 섬기는 것은 인간 자유의지입니다.

처음에는 좋아하면서 믿고 감사하며 살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와 뜻을 모르고 세상에 속해 세상만 사랑하며 살다가 결국 믿다 마는 자들이 많습니다. 또 처음부터 복음을 듣기 싫어하여 불려왔으나 자기 스스로 그 끈을 끊어 버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처음에는 잘 믿었으나 가다가 환난과 고통을 당하니 믿다가 마는 자들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구세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많은 것을 얻게 하는지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을 위해 살다가 결국 안 믿고 말게 됩니다.

사람은 유익을 보고 수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같이 이 세상에서 큰 유익을 얻는 것은 없습니다. 영원토록 유익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원히 유익이 되는 일을 안 하니 영원히 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어떻게 가르쳐 주고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운명이 좌우됩니다. 처음 신앙을 접한 사람들을 정말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과 주님을 잘 믿기 위해, 자기 자신이 더욱 알기 위해 배우고 체험하여 믿음의 필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필요성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운명이 더욱 좌우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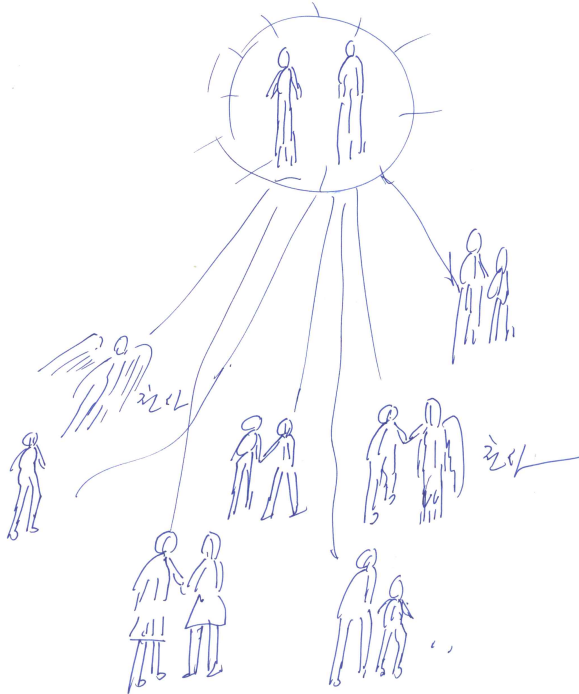
셋째, 말씀의 내용에 따라 신앙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넷째, 자기가 잘 몰라도, 혹은 약해졌어도, 혹은 믿기 싫어도 옆의 사람이 얼마나 관리해 주고 도와주느냐에 따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신앙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풀어야 할 문제이며, 우리가 해야 될 책임입니다.

<영상1>

①



<자막과 설명>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택한 자들을 ‘복음’으로 부르시기 전에 먼저 천사를 통해 도우시고 사람을 통해 도우시며 역사하십니다.

②



<자막과 설명> 그러다 구원의 때가 되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보내 시어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데려오게 하십니다. 이때 오느냐, 안 오느냐

나 하는 것은 자기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셔서 부르셨어도 자기 자유의지로 천국과 지옥을 택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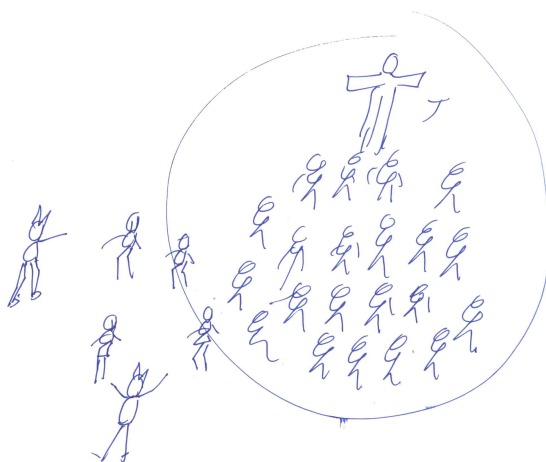
③ 시대 말씀을 배우고 점점 깨달아 가는 모습

<자막과 설명>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왔으면, 주님께서 시대에 주신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점점 깨닫고 알게 됩니다.

④ 설교를 듣고 기도하니 부르심의 뜻을 확실히 깨달아 “아멘. 할렐루야!” 하며 기뻐하는 모습

<자막과 설명> 설교를 듣고 기도해야 과거부터 예수님이 역사하시어 자기를 기르시고 구원하기 위해 부르신 것을 더욱 확실히 알고 기뻐하게 됩니다.

⑤



<자막과 설명>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자기를 택하고 기르신 것을 깨닫고 기뻐하며 따르다가도 환난, 핍박, 시험, 각종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⑥ 생명을 관리하여 기르는 모습

<자막과 설명> 고로 관리해야 됩니다.

제대로 배워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제대로 역사하십니다. 제대로 배워야 자신도 변화가 일어나 더욱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됩니다.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 술, 담배, 세상 쾌락, 이성 사랑 다 끊어도 신앙생활만으로 기뻐하며 살게 됩니다. 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지 제대로 아는 만큼 그만큼 좋기 때문입니다. 믿어도 시원찮게 믿으면 안 믿는 자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선생은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정말 모르는 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기 위해 수십 년을 예수님께 배우고, 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가르쳐 주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하나님과 주님을 믿는 것이 좋아서 믿고 살도록 해 줍니다.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먼저 자신이 좋아서 믿어야 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좋아서 믿도록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세상 이성 사랑에 비할 수 없이 기쁜 일들과 뇌가 흥분되는 희락의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성의 사랑으로만 사람이 흥분되고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참진리를 깨닫고,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고, 죽어 가는 영혼을 전도하고 구원하며, 영적으로 살 때 마음 천국을 이루어 더 기쁘고 좋습니다. 마음 천국은 마음만 기쁘고 좋은 천국이 아니라 실제로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흔히 기독교에서 교회에 다니다 만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게 재미 없어서 다니다 말았다.”, 혹은 “말씀이 별로여서 다니다 말았다.”, 혹은 “다닐 필요성을 못 느껴서 다니다 말았다.” 라고 합니다. 또 “인간 대우를 안 해 줘서 섭섭해서 다니다 말았다.” 라고 합니다. 또 “말씀의 의문을 풀어 주지 못해서 다니다 말았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중에 이런 자들이 많습니다. 고로 요즘 기성 교회에 가 보면 어른들이 젊은이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찬양 집회 때나 젊은이들이 많이 모입니다. 일개 가정도 어른보다 젊은이가 많아야 비율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에 가 보면 젊은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는 젊은이들이 신앙의 전쟁터에서 사탄과 싸우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역사하는 새 역사에는 거의 젊은이들입니다. 젊은이들은 패기 있고 열정이 있고 의문이 많습니다. 또 희망을 보기 원합니다. 새 역사에서는 이것들을 채워 주기에 젊은이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다. 또한 삶의 무기인 하나님의 시대 말씀을 쫓기 때문에 사탄과 싸워 이겼기에 젊은이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종교를 봐도 우리 섭리사같이 젊은이들이 많은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서 새 역사, 새 말씀으로 역사하시니 시대 젊은이들이 모여들어 시대를 책임지고 가게 하셨습니다. 섭리사는 처음부터 젊은이들이 전체의 90%를 이루며 왔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결혼하고 어른이 되어 이제는 어른들도 많아졌습니다. 어른들이지만 새 시대 어른들입니다.

희망이 있고, 사탄과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는 새 역사이니 모두 잘 가르쳐서 희망 있게, 재미있게, 신나게 섭리역사를 뛰고 달리게 해 줘야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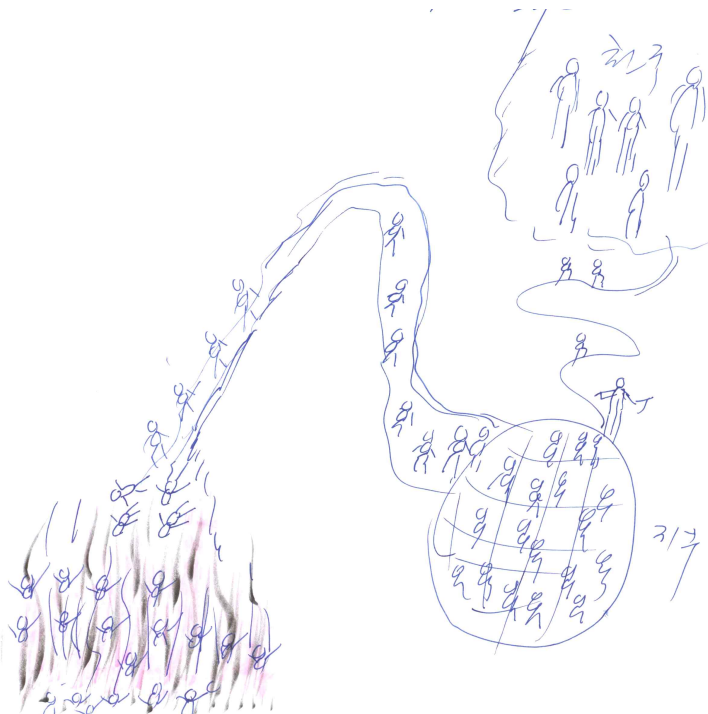
<영상2>

<자막> 제대로 배워야 하나님도 예수님도 제대로 역사하신다.

제대로 배워야 자기에게 변화가 일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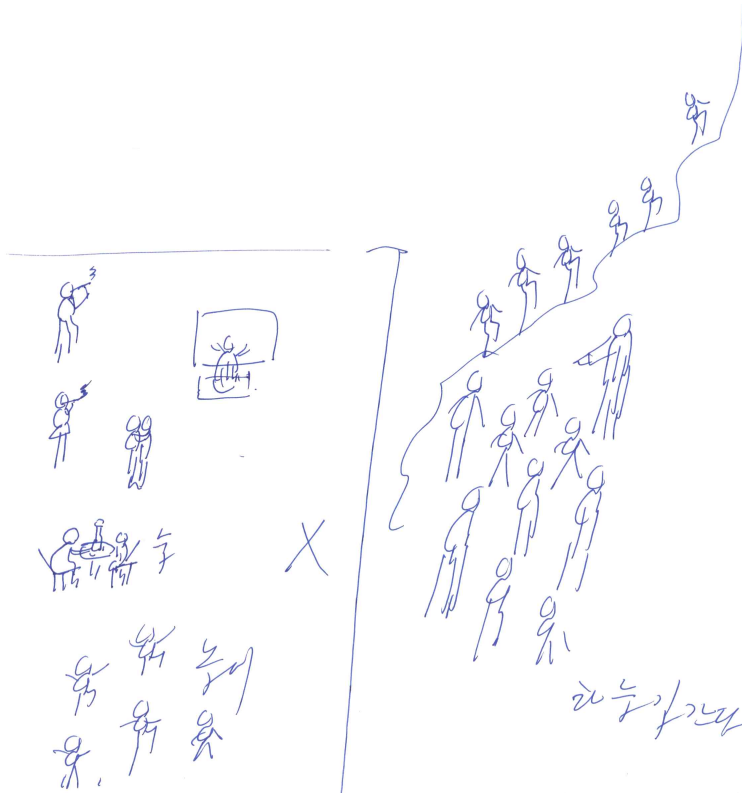
제대로 아는 만큼 신앙의 가치를 알고 주 뜻대로 산다.

①



<자막과 설명>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안 믿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것을 말로만 하면 잘 깨닫지 못합니다. 본인이 확실히 깨닫도록 기도하여 체험하게 하기도 하고, 지옥과 천국에 갔다 온 자들이 확실히 가르쳐 주기도 하고, 시대 말씀으로 무장시켜 줘야 합니다.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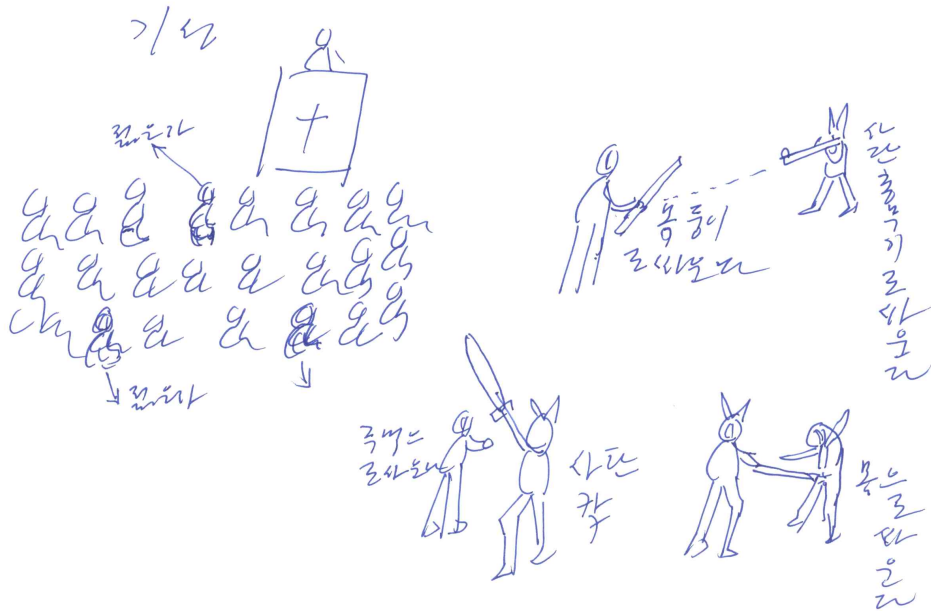


<자막과 설명> 제대로 배워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알고 믿으면 술, 담배, 세상 쾌락, 이성 사랑, 놀기 좋아하는 것을 다 끊어 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됩니다. 그로 인해 더 만족함을 누리게 됩니다.

③ 기성 교회 : 젊은이들이 거의 없다.

- 사탄은 총으로 싸우는데, 상대는 몽둥이로 싸우니 진다.
- 사탄은 칼로 싸우는데, 상대는 주먹으로 싸우니 진다.
- 사탄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데, 상대는 몸으로 싸우니 진다.

<자막과 설명> 기성은 말씀의 무기가 없어서 젊은이들이 신앙의 전쟁터에서 사탄으로 인해 멸함을 받았습니다.



- ④ 섭리사 : 젊은이들이 많다. / 사탄이 총칼을 들고 싸워도 섭리인들은 신형 무기를 가지고 싸우니 이긴다.



<자막과 설명> 섭리사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시대 말씀을 주시어 각자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탄을 멸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악평자와 싸워 이기고,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고로 젊은이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섭리사 실제 대집회 모습

<자막과 설명> 이 시대가 어떠한지 확실히 외쳐 주어 시대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능히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흑여 세상 그 어떤 일을 못 해도, 결혼을 못 해도, 애인이 없어 사랑

하지 못해도, 돈을 못 벌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잠잘 집이 없어도, 입을 옷이 없어도, 어떤 고통이나 억울함이 있어도, 곧 죽는다 해도, 병들어 신음해도, 애인이 불신하여 억울하고 화가 나 죽고 싶어도, 화재가 나서 집이 다 타고 재산이 없어져도, 재난을 당해 알몸만 남아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려울 때 안 도와줬다는 생각이 들어도, 어떤 실망과 낙망과 절망 중에서도 선생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사랑하며 흔들림 없이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주시고, 소원을 이뤄 주시고, 한을 풀어 주십니다. 육신은 혹여 고생해도 영이 구원받아 영원히 지옥 불바다, 무저갱, 음부, 악의 세계에 안 가고 천국에 가서 사니 끝까지 흔들림 없이 믿어야 됩니다.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 보내신 구세주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영혼이 영원한 불바다 지옥, 무저갱, 음부로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고 착하게 산 것은 그 행위대로 세상에서 받고 끝날 뿐이지, 영혼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야 선하게 산 것도 자기 영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지옥에 가 본 자들이 모두 똑같이 말합니다. 지옥에 가 있는 영들 중의 100이면 100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구세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거나, 믿었어도 형식으로 믿은 자들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선생도 지옥에 가 보고 와서 말해 줍니다. 역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죄를 회개하지 못한 자들의 영이 지옥에 가 있었습니다. 또한 믿었어도 형식으로 믿은 자들의 영과, 세상에서 선하게 살았어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 믿은 자들의 영은 피할 수 없이 지옥, 무저갱, 음부, 악한 영계로 가서 매일 갖은 고통을 받으며 마귀들과 악령들과 살고 있었습니다.

고로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못 하더라도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같은 앞날의 운명을 놓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먼저 와서 믿고 아는 자들을 통해 불러오셨습니다. 첫날부터 이를 깨닫고 알고 기뻐하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세상 인생들이 사는 모습을 보시면서 한숨 소리도 들으시고, 눈물도 보시고, 곤고함도 보시고, 고생하는 것도 보시고서 사망의 슬픔과 사망의 눈물을 없애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살리는 때가 되어 여러분을 불러오셨습니다. (아멘.) 때가 되어 불러 오셨습니다. (아멘.)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지금 가수들이 대표로 불러 줄까요? 아니면 같이 찬양해 볼까요? 이 노래는 선생이 일생 중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고 긴긴 역사의 선고를 받아 지방으로 내려갈 때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고 그 사랑을 받고 사니 정말 다행이다.’ 생각하는데, 주님이 옆에서 이야기하시어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믿고 사는 행복을 아는구나. 너뿐만 아니라 섭리 사람 모두 다 이 노래를 부르며 나 예수를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라.” 하셨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노래 불러 볼까요? 노래가 끝나면 주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노래 끝나고 <영상3>)

<영상3>

① 해당 영상

<자막과 설명> 혹여 세상 그 어떤 일을 못 해도, 결혼을 못 해도, 애인이 없어 사랑하지 못해도, 돈을 못 벌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잠잘 집이 없어도, 입을 옷이 없어도, 어떤 고통이나 억울함이 있어도, 곧

죽는다 해도, 병들어 신음해도, 애인이 불신하여 억울하고 화가 나 죽고 싶어도, 화재가 나서 집이 다 타고 재산이 없어져도, 재난을 당해 알몸만 남아도, 어떤 실망과 낙망과 절망 중에서도 선생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사랑하며 흔들림 없이 믿어야 됩니다. / 그래야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되어 영원히 손해가 없습니다.

② 해당 영상

지옥에 간 영혼 : “왜 내가 지옥에 왔지? 세상에서 착한 일도 많이 했는데...” / 사탄 : “너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 믿어서 여기 온 거야.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낸 것이 아니라 네가 그같이 살았잖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 믿은 자들의 영혼은 다 여기 온다. 그리고 믿었어도 형식으로 믿은 자들은 다 여기 온다.” / 지옥에 간 영혼 : “저는 언제 이 고통의 세계를 벗어나나요?” / 사탄 : “이곳에는 한 번 오면 영원히 못 나간다.”

<자막과 설명>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 죄를 회개하지 못한 자들, 믿었어도 형식으로 믿은 자들은 세상에서 선하게 살았어도 피할 수 없이 지옥의 세계로 갑니다.

③ 해당 영상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튼튼하게 만들고, 생명도 전도할게요!)

<자막과 설명> 앞날의 운명을 놓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오셨습니다. 이를 깨닫고 불만하지 말고 감격하며 믿어야 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영상4> 예수님 출현

<예수님 말씀>

너희는 다시 나 예수의 말을 듣고 믿어야 됴를 더욱 확실히 깨닫고,

세상에서 너희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내가 한 말을 명심하고 생명시하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라. 그리하면 하늘나라를 상속받으리라.

너희는 한번 생각해 보아라. 너희에게 영광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나 예수를 믿고 사랑하라고 했겠느냐. 그래서 너희 인생 일평생을 도우며 그토록 애태웠겠느냐. 아니면, 너희 육신이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나 예수를 제대로 모르고 믿지 않음으로 너희 영혼이 사망 지옥에 가서 하나님과 나 예수를 불신한 마귀들과 함께 영원히 고통 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예수를 믿게 했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과 나 예수를 믿고 살라고 말한 목적이 너희를 위해서냐, 하늘을 위해서냐. 전능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영광 받을 자들이 없어서 그러시겠느냐. 3천억도 더 되는 천인들과 천사들이 매일 하늘나라가 울리도록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신다.

내가 이야기를 하나 할 테니 들어 보아라.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외진 곳 길가에서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으려는 사람이 있었다. 길을 가던 자가 너무 놀라서 죽으려 하는 자에게 가서 애간장 태우며 말렸다. 그러나 죽으려 하는 자는 말리는 자의 말을 다 뿌리치고 “당신이 지나가면 죽고야 말겠느니 그냥 가시오! 나는 죽는 것을 택했으니 죽음의 길을 갈 것이요!” 했다.

길 가던 자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갈 길을 갔다. 그러다 다시 뒤를 돌아보니 그 사람이 또 나무에 줄을 매고 있었다. 정말 죽으려 하는 사람임을 알고, 그날 꼭 가야 할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접고 죽으려 하는 사람에게 달려가 붙잡고 말렸다.

그러니 목매달아 죽으려고 하던 자가 말했다. “당신이 필요 없는 길을 가니까 가던 길을 안 가고 또 왔군요? 꼭 가야 될 길이라면 왜 안 가고 또 내게 옵니까?” 했다. 실상 길을 가던 자는 그날 꼭 가야 될 길을 가고 있었다. 안 가면 안 되는 길이었다. 바로 임금의 조서를 가지고 가는 길이었다. 그 조서를 안 전해 주면 자기가 큰일 나는 일이었다.

너희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한번 생각해 보아라. 목매달아 죽을 자를 살려 주어 그가 안 죽고 살면 자기에게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여 자기가 갈 길도 안 가고 밤새워 못 죽게 말리고 살리려 하겠느냐. 아니면 젊은이가 죽는 것이 불쌍하고 그 식구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탄식할까 걱정되어 생명을 긍휼히 여겨 살려 주려 하는 것이겠느냐. 인생 죽는 것이 너무 불쌍하여 살려 주지, 영광을 위해 살려 주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나 예수도 죽음을 내걸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가며 너희를 살려 주었다. 너희를 살려 주고 너희로 영광 받으려 함이 아니다. 너희가 불쌍해서 살려 준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나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 예수를 불신한 최고 악마들이 있는 지옥에 못 가게 하기 위함이다. 영원히 멸망받는 지옥에 못 가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나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 영이 구원받고 천국에 와서 영원히 기쁨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는 이것을 깨닫고 이제부터 일평생 어떤 일을 당해도 오직 전능자 하나님과 나 예수를 믿어라.

<영상5>

① 해당 영상

<자막과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과 구세주 나 예수가 너희에게 영광 받으려고 이같이 애간장 태우며 구원하려 하겠느냐. 아니면 너희 영혼을 영원한 고통의 세계인 지옥에 안 보내려고 긍휼히 여겨 구원하려 하겠느냐.

② 해당 영상

<자막과 말씀> 천국에서는 매일 3천억이 넘는 천인들과 천사들이 매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③ 해당 영상

<예수님 말씀> 어떤 자가 길을 가다가 목매달아 죽으려 하는 자를 발견했다. 그로부터 영광을 받으려고 그를 살려 주려 하겠느냐. 아니면 생명을 귀히 여겨 불쌍해서 살려 주려 하겠느냐. 생명을 긍휼히

여기니 불쌍해서 살려 주려 하는 것이다.

④ 해당 영상

<자막과 말씀> 하나님도, 나 예수도, 성령님도 애간장을 태우며 너희를 구원하려는 이유는 너희를 구원하여 시종드는 자들로 쓰며 영광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너희 육도 구원하고, 너희 영도 저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 받지 않고 천국에 와서 기쁨으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함이다.

왜 이같이 나 예수가 나타나 이 시대에 너희에게 이같이 애원하겠느냐. 왜 이같이 내가 보낸 전도자와 사명자를 통해 애타게 외치겠느냐.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을 한 가지 더 말해 주마.

나 예수가 성경에 약속한 대로 곧 재림하여 나 예수를 진실로 믿는 자들의 영혼을 신부로 맞고 천국으로 이끌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탄과 악마들은 너희가 안 믿고 불신하도록 사람을 쓰고 갖은 악평을 한다. 어느 누가 악평해도 그 말을 듣지 말아라. 몰라서 그리 하는 것이다. 그들 중의 더러는 나의 역사를 악평함으로 인하여 나를 모독한 것이 되어 심판을 받아 지옥 판결을 받았다.

나 예수가 너희를 이곳으로 불렀으니 오직 나 예수를 믿고 시대 말씀을 듣고 따라라. 너희 육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삶을 살고, 육의 행위로 인해 너희 영혼이 하늘의 형체로 변화되어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영원히 사탄, 마귀, 악령들이 고통 받으며 고통을 주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된다.

너희가 이 역사로 와서 진실로 나 예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할진대, 나 예수가 너희와 범사에 함께할 것이다. 나는 이미 너희 구원을 위해 죽어 주었으니 너희를 구원하려는 나의 심정을 알아라.

이 시대 가장 큰 조건을 세우고 나 예수를 진실로 사랑하는 너희 선생을 세상과 악평자들이 악평하고 해를 주지만, 세상 그 누구를 막론하고

나 예수가 보낸 사명자를 미워하거나 악평하면 곧 나를 대적하고 미워한 자가 되므로 죄 없다 아니 할 수 없고, 그 죄로 인하여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동안 죽음과 병과 가장 무서운 재앙으로 심판해 왔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당했으면서도 모르느냐.

어느 시대든지 내 아버지와 나 예수가 시대에 보낸 자를 미워하거나 억울하게 하거나 고통을 주고 막으면 미워하고 막은 자들과 그 민족과 그 시대와 세계까지 같은 고통을 주고 각종 재앙으로 심판했다. 노아 때도, 아브라함 때도, 모세 때도, 여호수아 때도, 다윗 때도, 선지자들 때도, 사사 때도, 이외 중심인물 때도 그리했고, 지금 이 시대도 그리하고 있다. 그리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을 읽어 보아라.

하나님과 나 예수가 보낸 자를 막고 악평하고 괴롭히고 억울하게 하면, 그로 인하여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사망으로 가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내가 보낸 사명자를 막고 할 일을 못 하게 하면 하늘이 친다. 너희는 나의 말을 믿고 굳건하여라.

주일, 수요일, 성령집회 때 말씀을 잘 배우고 나 예수를 더욱 잘 믿고 사랑하며 내가 주는 축복을 받고 살아가라. 너희 영과 육을 구원하여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역사로 불러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는 주 예수다. 샬롬!

<영상6>

① 해당 영상

<자막과 말씀> 만왕의 왕인 나 예수가 이 시대에 내가 보낸 사명자를 희생시켜 가며 왜 이리도 애간장 태우는 줄 아느냐. 나의 재림이 아주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어서 시대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나의 사랑의 신부가 되어 너희 영혼이 나의 재림을 맞고 천국에 와서 나와 같이 살자고 함이다.

② 해당 영상

<자막과 말씀> 섭리역사를 악평하는 말을 듣고 같이 악평함으로 죄를 짓고 심판받지 말아라. 악한 자, 무지한 자의 말을 듣고 악한 말을 하지 말아라.

③ 해당 영상

<자막과 말씀> 섭리역사와 내가 보낸 자를 악평하고 억울하게 한 자들은 지금까지 각종 재앙으로, 양심 심판으로, 병으로, 고통으로 행한 대로 심판해 왔다. 너희는 TV를 통해 내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았다.

④ 해당 영상

<자막과 말씀> 노아 때도, 모세 때도, 여호수아 때도, 히스기야 왕 때도, 다윗 때도, 기드온 때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에게 고통을 준 자들은 시대 심판을 받았다. 그 영혼들이 지옥에 가서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

⑤ 해당 영상

<자막과 말씀> 너희는 주일, 수요일, 성령집회 말씀을 잘 듣고 나 에수를 더욱 믿고 사랑하여 내가 주는 축복을 받아라. 오직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역사로 불러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는 주 예수다. 샬롬!

<축 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